

Part

I 다양한 금융사기 및 대학생 금융 피해 예방하기

1.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방법	4
2. 대학생 금융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12
3. 각종 금융사기 피해 시 대처요령	18
4. 가상자산 연계 각종 금융사기 피해 시 대처요령	19

Part

II 대학생이 알아야 할 금융거래의 기초

1. 현명하게 은행 거래하기	25
2. 금융투자상품 활용하기	32
3. 보험상품 올바르게 가입하기	37
4. 슬기롭게 신용 관리하기	40

참고

1.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활용방법	44
2.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46
3.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도	47
4. 금융감독원의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안내	48
5. e-금융교육센터 [금융교육 한눈에] 살펴보기	49

%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 이야기



₩





Part 1

다양한 금융사기 및 대학생 금융 피해 예방하기



1.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방법
2. 대학생 금융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3. 각종 금융사기 피해 시 대처요령
4. 가상자산 연계 각종 금융사기 피해 시
대처요령



1.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방법



■ 금융사기란?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합니다. 이를 통상 ‘금융사기’라고 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메신저피싱 등이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보이스피싱은 Voice(목소리), Private data(개인정보), Fishing(낚시)을 합성한 말로, 전화로 속임수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보내게 하여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빼내어 재산을 탈취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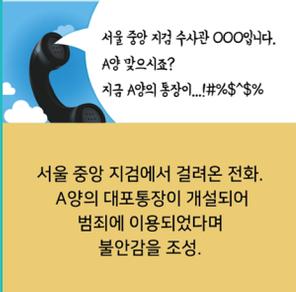
🔍 특징

- ①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사람들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고, 사칭하는 기관의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합니다.
- ② 전화 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에 확인하기 위해 거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③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여러 명의 사기범들이 계좌모집, 환전·송금, 인출 등 각자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합니다.

📍 주요 유형

- ① 공공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개인정보 유출이나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압박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합니다.
- ②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 저금리로 대출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이나 수수료 등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합니다.
- ③ 납치/사고빙자형 보이스피싱 : 자녀 등이 납치되었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속이며 돈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p>분명히 112에서 온 전화였다구요</p> <p>정부기관사칭 편</p> 	<p>평범한 20대 직장인 A양 평소와 다른 하루를 보내던 중 걸려온 한통의 전화</p> <p>발신번호 02-112</p> 	<p>112라는 번호에 A양은 별 의심없이 전화를 받는데,</p> 
<p>서울 중앙 지경 수사관 000입니다. A양 맞으시죠? 지금 A양의 통장이...!#%\$^\$%</p> 	<p>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한다.</p> 	<p>전화하며 들리는 안정되고 전문가스러운 어법에 A양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 말을 믿게 되는데!</p> 
<p>A양은 2일에 걸쳐 3개의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하여 정기예금 및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으로 총 1억원을 송금.</p> 	<p>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직원이 A양에게 자금사용 목적을 물었지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기범이 시키는대로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낸다'고 이야기 한 사건.</p> <p>137</p> <p>BANK</p> <p>이 돈을 어디에 쓰실거죠?</p> 	<p>젊은 20~30대들을 상대로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갈취한 사기 사건은 우리 주변과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p>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저금리 대출로 바꿔 준다구요?
조금 부담을 덜겠지?
빨리 바꿔야겠다.

-대출사기 편



피해자 B씨(30대,남)은
00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
전화를 받게된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부담이 컸던 B씨는 고민 없이
고금리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 먹었다.



B씨는 00은행직원으로 사칭한
사람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기존 대출금 1억을 입금했지만
사기범은 연락두절되며 잠적한다.

본인의 상황이 막막해
큰 고민없이 순식간에 결정되어
진행 된 대출 사기



평소 B씨는
'보이스피싱 같은걸 왜 당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상황을 잘 꿰뚫고
심리를 이용한 사기에는 누구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으면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금의 의심이
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전환가능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무조건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예방 3요령

피해예방 요령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 ②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 ③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 ④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 ⑤ 낯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먼저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입니다.
- ⑦ 가족 등을 사칭하여 금전 요구시 먼저 가족 등에게 전화하여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 ⑧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 ⑨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⑩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파밍(Pharming)

이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서 금융회사 등의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를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 특징

- ① 인터넷 '즐거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등, 보이스피싱에 비해 사기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 ② 가짜 홈페이지는 정상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하며, 보안카드의 일부 앞뒤 번호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예방 요령

- 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파일은 클릭하지 않습니다.
- ② 보안카드보다 안전한 OTP(일회성비밀번호생성기)를 사용합니다.
- ③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스미싱(Smishing)

스미싱은 SMS(문자메시지)와 Phishing(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를 대량 발송 후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재산을 탈취하는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특징

- ① 택배 배송 안내,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 등 쉽게 읽어볼 수 있는 형태로 발송됩니다.
- ②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을 발송하여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택배 사칭

[OO택배] 추석배송 물량증가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송일정 확인하세요
<http://net.nkn8>

공공기관 사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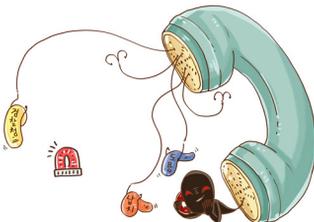
[도로공사] ■■■님차량
불법단속대상 적발!
확인 후 빠른처리 요망!
<http:365.com>

지인·선물 사칭

OOO님 추석명절 선물로 모
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http://hp.e/nba8l>

피해예방 요령

- ☞ 문자메시지 상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습니다.
-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합니다.
- ☞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공인된 애플리케이션마켓을 이용합니다.
- ☞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 콜센터 등을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합니다.



메신저피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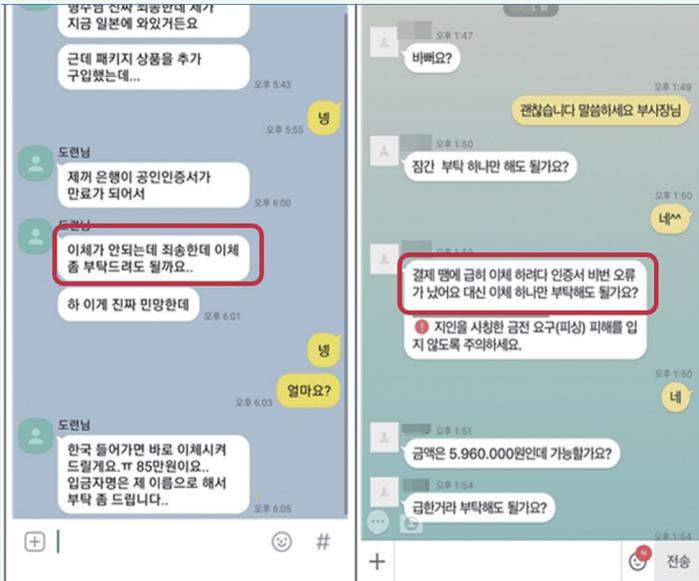
가족 또는 친구 등을 사칭하며 메신저를 통해 급전 명목으로 송금을 요청하여 가로채는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주로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크게 의심하지 않고 송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

- ① 부모, 이모, 삼촌 등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하며,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합니다.
- ② 모바일뱅킹 오류 등 긴급한 사유를 들어 소액을 타인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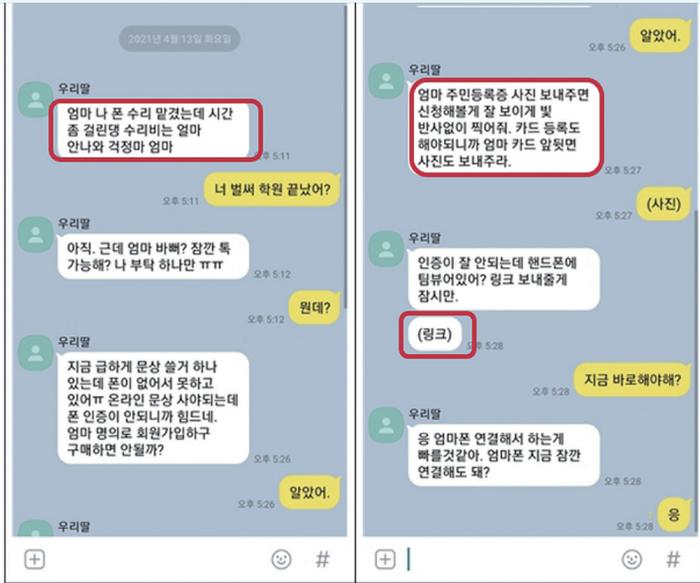
메신저피싱 : 사례 ①

[사례]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하여 송금불가 핑계로 금전편취



메신저피싱 : 사례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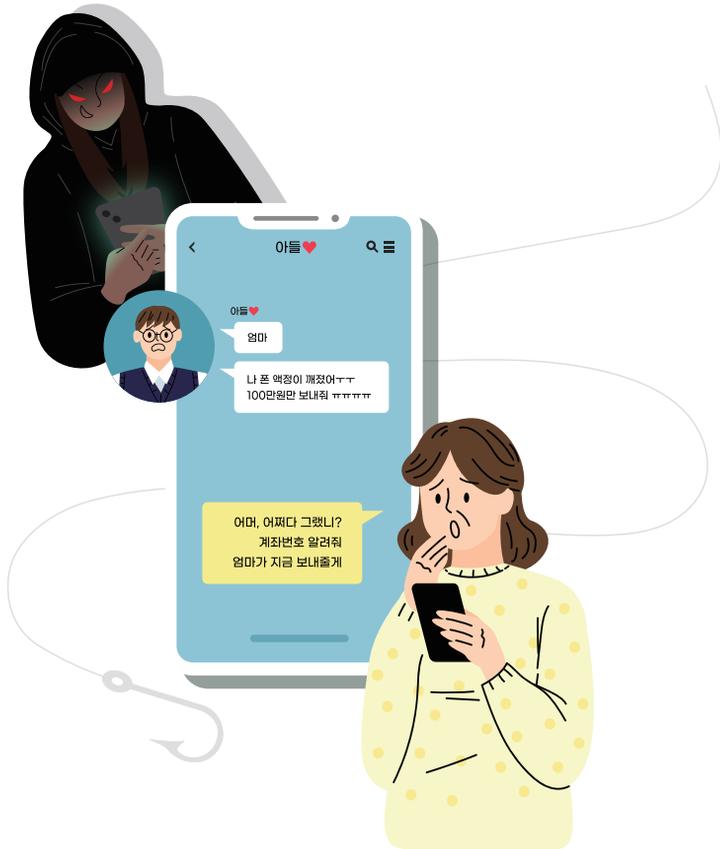
[사례]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신분정보 탈취 및 악성앱 설치유도



피해예방 요령

- ① 지인을 사칭하여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인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하세요.
* 단, 이미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이 설치되었을 경우 전화가 사기범에 연결될 수 있으니 해당 어플을 삭제(휴대전화 초기화)하거나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확인하세요.
- ② 메신저 보안 설정 및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 ③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지 마세요.
- ④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 ⑤ 메신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 ⑥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자기기로 메신저 사용이나 인터넷뱅킹 등의 거래를 자제하세요.

- ◆ 금융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해야 합니다.
-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최신 피해사례 및 예방수칙을 확인해보세요.



2. 대학생 금융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최근 학자금 및 생활비 부담, 실업난 등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이에 따른 금융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이 기초적인 금융지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빙자사기(불법 대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에게 속았다 하더라도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대출금 상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추가 대출이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또다른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유형

- ① **작업대출** : 직업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작업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광고합니다. 실제로는 개인정보 및 통장 등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거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기입니다.
- ② **내구제대출** :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의 대출로,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구입한 뒤 넘겨주면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 준다고 광고합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향후 휴대전화 할부금, 매월 요금, 소액결제대금을 대출 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되거나,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넘겨져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예방 요령

- ☞ 빠르고 쉬운 대출로 유혹하는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전화, SMS, SNS를 이용한 대출 광고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 관련 사기

취업 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청년 구직자들을 속인 뒤 대포통장 사기 대상으로 삼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으로 악용하는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통장 등을 넘겨주면 각종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금융사기에 연루된 경우 본인이 잘 몰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을 인출해주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유형

- ① **취업빙자사기** : 구직자에게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거나 실제 취업이 되었다고 접근합니다. 본인 금융거래 상태 확인, 급여 이체, 회사 업무 등에 필요하다고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 뒤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 ②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기** :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시하며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전화·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합니다. 거래대금을 인출·전달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불법 자금의 인출·전달책으로 이용합니다.

피해예방 요령

- ☞ 구직자 모집 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의 경우 정상 업체가 맞는지 방문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양도나 대여를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 ☞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지급정지나 계좌 해지를 요청합니다.

취업빙자사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이건 꼭 체크하세요!

- 취업사기 대표통장편 -



금융감독원

A씨(26세,여)는 얼마 전 이력서를 넣었던 OO업체에서 합격 연락을 받게 된다.



OO회사에서는 원래 합격한 사람이 취소되어 A씨가 급하게 합격됐다며 바로 일을 할 수 있냐고 요청하는데...



면접도 없이 일하게 되는 게 이상했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던 A씨는 바로 취업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알겠습니다!



OO회사에서는 월급입금을 위해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A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A씨는 자주 쓰지 않는 통장이 있어 별 의심 없이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며칠 뒤, 개인정보를 넘긴 후 연락이 오지 않아 회사에 전화해보니 회사번호는 '없는 번호'로 확인이 되었다



얼마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A씨는 그제서야 본인의 통장이 대표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취업이 간절한 취준생의 마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 타인에게 통장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입금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의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21년) 2,862건 → (‘22년) 3,819건 → (‘23년) 3,959건

영업행태는 ①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합니다. ②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 환산시 1,000~3,000%)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천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합니다. ③연체 시 전화번호, 사진,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대리입금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대리입금 광고사례(트위터)

대리입금

조건

트윗 활동량 1500이상인 본계. (부계, 알계 안 받습니다.)
본인 인증 가능한 신분증 (학생일 시 학생증, 성인은 민증)
민증과 계좌 예금주가 맞지 않을 시 대리 안 해드려요.
XX남자XX여자 받습니다.
최대 금액 3
수고비는 원금의 20%, 최대기간 3일이에요(빌리는 날짜 포함)
하루라도 지각 시, 지각비 5000원 입니다.
2일 지각시 바로 경찰서 가요. 인증 찍세게 합니다.

대리입금 해드려요

! DM으로만 연락 부탁드립니다 !

재촉 = 차단

- 소액 가능
- 한 번에 한 분씩만 해드려요
- DM 양식 :
이름/나이/전화번호/빌릴 금액/수고비/상환날짜/신분증
- 계좌는 답장 받으신 분들만 주시면 돼요
- 양식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읽지 않습니다

대리입금

- 1 첫 거래는 5만원, 그 담부터는 9만원까지 가능!
- 2 남자는 안받습니다
- 3 [금액, 수고비, 상환날짜, 나이] 보내주세요
- 4 거래시 지각하면 지각비 자동 동의예요
- 5 기간은 최대10일 4

#대리입금 #달입

♥대리입금 진행♥
이름과 계좌주 일치 할 때만 거래

- ▶ 학생만 > 학생증 확인
- ▶ 5.0 이하만 가능
- ▶ 반환기간 최대 1주일
- ▶ 수고비 + 지각비 계산

📌 주요 유형

- ① **불법추심** : A양은 아이들 굿즈를 사기 위해 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렸으며 수십통의 추심전화를 통한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다 열흘 후 이자와 연체료를 합친 14만원 상환(연 2,737%)
- ② **개인정보 유출** :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올려 480여명의 청소년에게 5억3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채무자의 상환이 지연되자 학생증·연락처 등을 SNS에 게시
- ③ **도박자금 마련** : 중학생 D군은 사이버 도박(바카라)로 한 달 사이에 1,600만원을 잃은 후에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를 저지르고 대리입금을 이용(300만원) 하였다가, 매일 고금리의 빚 독촉을 받는 사건 발생

청소년이 일시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될 경우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청소년, 학부모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다음의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소비자 유의사항

- ① 대리입금은 연 1,000%이상의 고금리 사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② 피해 발생시 지인에게 알리거나 경찰(학교전담경찰관 포함), 금감원(홈페이지, ☎1332)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③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하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④ 경찰조사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 가능합니다.
- ⑤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각종 금융사기 피해 시 대처요령



불가피하게 각종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 속아서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경우

- ① 경찰청(국번 없이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즉시 전화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② 이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피해금 환급)를 신청합니다.
- ③ 피해금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소송절차 없이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분실,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 ①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이용 정지를 요청합니다.
- ② 통장, 현금카드의 대여 또는 양도를 요구한 모집책 또는 불법 금융광고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 ① 통신서비스 관련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가입합니다.
- ②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 등록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각종 신고

- ☎ 지급정지·피해신고 : 금융회사·경찰청 (국번 없이 112)
- ☎ 피싱사이트 신고 : 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 ☎ 피해상담·환급 :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4. 가상자산 연계 각종 금융사기 피해 시 대처요령



가상자산이란?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합니다.

2008년 8월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 최근에는 금, 은, 주식 등 금융자산 중 시가총액 7위에 오르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여타 금융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현재까지 내재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은 2023년 1조 415억원에 달하며,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중 7가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향후 가상자산 거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①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

-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



- 가상자산 매수 후,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락업) 시켜야 한다고 하며 매도 및 출금 정지



- 정해진 락업 해제일이 다가오면 락업 연장을 유도하거나 락업 해제를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여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함



- 락업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손실 발생

프라이빗 세일물량 매수 후 투자손실 발생 사례



②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재단이 상장 전 가상자산 스테이킹* 업체를 통해 다단계 형태로 가상자산 투자자 모집

*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

** 가상자산 매수 후 일정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며, 추천인 수에 따라 회원 등급을 구분하여 이자를 차등 지급



- 동 재단은 가상자산 상장 후 '마켓메이킹(MM)' 업체를 통해 차명지갑 및 트레이딩 봇을 이용하여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 조종



-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재단 관련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



- 재단 관련자들의 대량 매도로 가격이 폭락하여 투자 손실 발생

③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 본인을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직원이라고 하며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므로 낮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권유*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상장 계약서를 위조하여 투자자에게 제시



- 동 가상자산이 투자금의 3배가 되지 않을 경우 재단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를 현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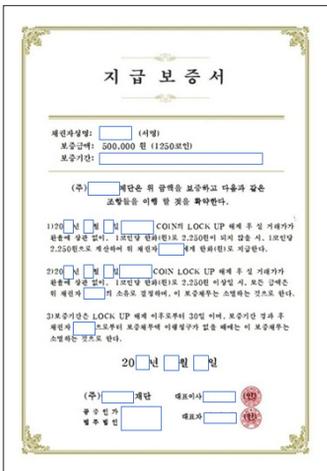


- 가상자산 매수를 위해 현금을 입금하면 투자자 명의 허위 전자지갑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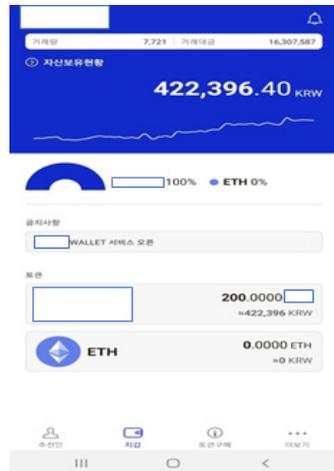


- 상장 일정이 계속 연기되었다고 하면서 이후 자금을 편취

수익보장각서와 허위 전자지갑으로 투자자 유인



〈수익보장 지급보증서〉



〈허위 전자지갑〉

④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

- 불법 리딩방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 목적으로 국내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으로 무상 지급하겠다고* 유인

* 자체 제작한 허위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꾸밈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을 사칭하여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입금 요구



-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편취하거나, 취득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추가 피해 발생

⑤ 유명 업체 사칭 NFT 피싱사기

-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유명 업체(항공사, 커피전문점 등)에서 발행한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무상 지급한다고 유인



- NFT를 받기 위해서 이메일로 송부한 URL 주소를 클릭하여 가상자산 전자지갑 주소를 연결하라고 함



- 지갑이 연결되면 해킹으로 지갑 내 보유 가상자산을 전부 탈취

⑥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허위 광고

- 가상자산 또는 재단 명칭을 마치 국내·외 유명업체명과 유사하게 만들어 해당 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인 것처럼 허위 광고



-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투자설명회,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 권유



- 해당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한 업체는 본인 물량을 투자자에게 직접 넘기거나 시장에 고가에 매도하여 수익실현



- 해당 가상자산이 유명 업체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격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손실 발생

■ 소비자 유의사항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표적인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①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 ②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③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④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⑤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 ⑥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

Part 2

대학생이 알아야 할 금융거래의 기초

1. 현명하게 은행 거래하기
2. 금융투자상품 활용하기
3. 보험상품 올바르게 가입하기
4. 슬기롭게 신용 관리하기



1. 현명하게 은행 거래하기



저축상품의 특성 및 종류

대학생이 되면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으로 소비하여야 합니다. 과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등을 지양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소득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전하여 확실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행위이며,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 만기에 원금과 함께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축상품은 투자상품에 비해 수익성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우체국 등에서 저축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은행은 저축상품 외에도 계좌이체, 외환, 대출, 신용카드, 금융투자상품 및 보험상품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저축상품의 종류

- ☞ **수시입출금예금** : 보통예금 등과 같이 원할 때마다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매우 낮지만 상품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잔액을 유지하면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정기적금** : 매월 일정금액을 미리 정한 만기까지 납입하여 목돈을 모으는 상품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상품도 있습니다.
- ☞ **정기예금** : 목돈을 비교적 장기로 예치하고, 만기 도래시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은행 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주거래 은행을 정해서 거래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등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을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에서 거래하기보다는 주거래 은행을 정해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은행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하여 가족 모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해 보세요.

본인에게 맞는 통장 상품을 활용합니다.

은행마다 직업, 연령 등에 따라 여러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인터넷·모바일뱅킹 전용 상품이 나와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장으로 신규 개설하거나 전환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알림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은행은 금융거래가 발생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뱅킹 앱이나 별도의 알림용 앱을 통해서 금융거래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이용하세요.



예·적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꿀팁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가장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찾아보세요.

'파인'(<http://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서는 현재 은행에서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상품을 찾은 뒤 해당 은행의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조건 등을 다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판 예·적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을 확인하세요.

은행들은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유동성 관리 등을 목적으로 기본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판매(특판) 예·적금을 수시로 출시합니다. 따라서 예·적금 가입시 특판 상품 판매여부를 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전용상품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 자유적립식 적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를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금액 중 일부를 자유적립식 적금에 분할하여 가입하는 경우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 만기가 된 예·적금은 바로 인출(재예치) 하세요.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후에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 시에는 바로 찾거나 재예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은행별로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금융꿀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① 은행 활용하기



■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착오송금)

착오로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구합니다.

자진반환 불응 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정보 시스템' (kmrs.kdic.or.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를 하고, 수취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은행업무 처리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은행 및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은행은 정당한 상속인을 보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주의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은행에 알리거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정당한 상속인이 지급 요청을 할 때까지 출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해 향후 회수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심사 시 기존 대출 연체 여부, 직장 유무, 소득규모 등 대출 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담보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나 담보의 가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대출기간 중 직장 변동, 신용등급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소득·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심사를 거쳐 대출금리 일부를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금융회사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금융회사별로 요구사항이 다르니 반드시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는 신용등급 상승과 더불어 거래실적이 많아졌을 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등 주거래 은행에서 거래 실적이 많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더 잘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 금융회사 이용 시 피해 또는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이용자의 피해 또는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1332)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금융회사와 분쟁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약 1~3개월 내외, 분쟁 이외의 경우는 약 1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②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



■ 신용이란 무엇일까요?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며, 경제에서는 돈, 상품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빌리거나 대가를 나중에 지불하는 데 필요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는 신용(평가)점수제가 활용되고 있으며, 0~1,000점으로 표기되어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도가 더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신용 정보에는 대출정보, 보증정보, 카드사용정보, 연체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신용은 왜 관리해야 하나요

신용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받을 때, 또는 경우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할 때에도 신용점수가 낮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점수가 낮으면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고, 아예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높다’, ‘낮다’는 개인의 금융 거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관리 방법을 잘 알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점수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신용점수는 주로 연체나 부도 발생 등의 경우에 크게 변동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스스로 개인 신용점수를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점수 관리 10계명

1.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신속성 및 편의성 때문에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받은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 등은 과거 부실률이 높게 나타나 신용조회사가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일반 대출을 이용합니다.

2.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기

개인 신용점수는 개인의 과거와 현재 신용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개인 신용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연체 없는 대출 거래, 신용카드 이용 등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아갑니다.

3. 값을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무 규모 설정하기

채무가 많으면 연체 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어 개인 신용점수가 하락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소득 규모, 기본적 생활비 등을 감안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 규모를 설정하고, 정해진 규모 안에서 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합니다.

4.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하여 이용하기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이용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래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신용거래 등을 합니다.

5. 타인을 위한 대출 보증은 가급적 피하기

타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는 경우, 이러한 보증 내역이 신용조회사에 통보되어 개인 신용점수에 반영되므로 타인에 대한 보증은 신중해야 합니다.

6.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자동이체 이용하기

카드 이용 대금, 통신요금 등의 소액을 단기 연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발생 횟수가 증가하면 개인 신용점수 하락을 초래하므로 자동이체를 활용하고 미리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7.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금융회사에 통보하기

금융회사에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청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금융회사에 미리 통보합니다.

8.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연체 정보는 개인의 신용점수 평가에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생활화하여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9. 연체 상황 시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여러 건의 연체가 발생하여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개인 신용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연체건이 있다면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함으로써 연체 정보로 인한 개인 신용 평가상 불이익을 감소시킵니다.

10. 자신의 신용정보 현황을 자주 확인하기

신용조회사의 무료열람권(연 3회)을 적극 활용하여 본인 신용정보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금융투자상품 활용하기



■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종류

예금은 만기(계약한 기간)가 되면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고,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과 달리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투자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투자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주요내용, 특징, 투자위험 및 보수·수수료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면,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투자 위험(또는 리스크)’이라고 하는데 투자 수익이 크면 그만큼 위험 또는 손실의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올바른 투자방법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본인이 직접 매매하는 경우를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상품을 이해하거나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간접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펀드’인데, 펀드의 큰 장점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을 투자자의 투자비율대로 나눠준다는 점입니다. 투자전문가가 대신 자금을 운용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자산에 다양하게 투자하게 되어 그만큼 투자 위험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전문가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계획이 있는 자금은 은행 등에 맡겨두고 장기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종류

- ㉠ **주식** : 주식회사에 투자한 사람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소유 지분을 기록한 증서입니다.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기업의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식 매매를 통해 이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 **채권** : 국가 또는 기업 등이 미래에 원금과 일정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예금과 달리, 채권의 상환여부는 발행한 기관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 ㉢ **펀드** : 여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을 투자자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상품입니다. 다양한 상품에 전문가가 분산투자하므로 개인이 주식 등에 직접투자 할 때 보다 위험이 낮은 편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ETF** :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으로, 펀드로서의 장점과 주식으로서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 ETF에 직접투자 시 판매보수 및 수수료가 없어 일반펀드에 비해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 장기 여유자금으로 분산투자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가격 변동성이 큰 편이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시 여러 상품에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도 높습니다.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이라면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투자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높은 수익률을 듣고 유혹을 느낄 수도 있으나, 과거의 수익률이 반드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과 손실이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회사 직원 등이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대출을 이용한 주식투자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높은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경우 강제로 주식이 처분되는 반대매매 등으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의 투자정보서비스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SNS, 증권방송,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조언을 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회원들로부터 회비(월 30만원~120만원)를 받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수익률 과대표시, 1:1 투자자문, 원금보장약속, 회비 환불거부 등)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고수익 보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 1332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 1372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 관련 꿀팁

<주식·채권 투자 관련>

㉠ '대박! 추천종목' 및 '○○○테마주'에 주의하세요.

주식 관련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종목을 적극 홍보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특정 종목을 홍보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거나, 특정 비상장주식이 유망하다는 말에 속은 카페회원에게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또한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주가가 크게 변동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자칭 '주식전문가'를 조심하세요.

자칭 '주식전문가'가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SNS 등에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나 '주식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투자조언 및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 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공시자료를 확인해보세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 자료 확인 결과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적발된 회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공모)이 어려워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 등은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식 투자시 수수료를 절감하세요.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므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를 통해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뒤에 거래할 증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별로 다양한 수수료 면제·할인 행사를 두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 관련 꿀팁

<펀드 투자 관련>

㉠ 투자목적 및 투자기간에 알맞은 클래스를 선택하세요.

클래스란 동일한 펀드 내에서 판매수수료 부과 방식 및 판매 경로 등에 따라 구분되는 펀드의 종류를 뜻하며, 클래스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시 수수료선취형(A클래스)이 비교적 총 비용이 낮으며, 단기 투자시 수수료미징구형(C클래스)이 비교적 적합합니다. 이와 같이 클래스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시 비용부담이 적은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판매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세요.

동일한 펀드라도 투자자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dis.kofia.or.kr>)를 통해 판매사별 판매수수료를 확인하고 판매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보수 등이 저렴합니다.

㉢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를 체크하세요.

대다수 펀드는 가입 후 1~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나, 펀드에 따라서 10년 동안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는 이익금 또는 전체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펀드 가입단계에서부터 예상 투자기간을 감안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기간, 부과기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금융꿀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상품 올바르게 가입하기



보험상품의 필요성 및 특성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연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죽거나 다칠 위험이 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릴 경우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하고, 거주지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바로 이러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개인 등 가입자에게 손실에서 회복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는 등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상품의 특성

☞ 주로 타인의 권유로 가입합니다.

보험상품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는 상품이므로, 가입자가 스스로 가입 필요성을 인식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 계약내용을 정확히 모른채 가입합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계약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약관내용도 분량이 적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불완전판매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집인들이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과장 설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소비자의 불만제기 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시 중요사항을 잘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④ 보험회사에 병력 등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상품 가입시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구두로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시 병력 등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린 경우, 보험사고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 마음에 들지 않는 보험상품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등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등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분을 받지 않은 경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경우 통상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중도 해약시 손해가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 적립액에서 사업비가 공제되어 해약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가입 관련 꿀팁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파인'(<http://fine.fss.or.kr/>)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 공시실(pub.insure.or.kr) 및 손해보험협회 공시실(kpub.knia.or.kr)도 이용 가능합니다.

㉡ 저축성보험 가입시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축성보험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된다고 오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및 각종 수수료 등이 차감된 금액이 적립됩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에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낮으며, 예·적금의 이자율과 단순 비교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시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연금 전환 기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금보험보다 높은 사업비가 부과되므로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보장한도가 낮은 경우 중복 가입을 통해 이를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부적합한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며 그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펀드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시 체크해보면 유익한 5가지 지표를 기억하세요.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 및 '파인'에서 5가지 지표*를 체크하면 보험회사 및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 보험가격지수(상대적인 보험료 수준),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공시, 지급여력비율(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

※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금융꿀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슬기롭게 신용 관리하기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

금융 생활에서의 신용이란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상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미래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 및 이자 결정,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행위가 신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회생활 시작부터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수집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즉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신용거래실적, 연체기록 등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 집중·관리기관으로서 각종 금융거래 관련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금융회사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합니다. 또한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KCB) 등의 신용조회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기타 회사(대부업체, 통신사, 유통회사 등)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평가하여 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신용평가는 과거에 신용등급제(1~10등급)를 적용하였으나, 2021년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이 높고 연체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신용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용조회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 4개월에 1회씩, 1년간 총 3번까지 무료로 자신의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는 행위는 개인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활용해 보세요.

* NICE평가정보의 「나이스지키미」(<https://www.credit.co.kr>)

KCB의 「올크레딧」(<https://allcredit.co.kr>)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

㉠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습니다.

연체 기록은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꼭 주의하고, 주기적인 결제대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이나 신용카드 사용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모두 향후 본인이 상환해야 할 '빚'이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향후 상환이 어려울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환능력을 넘어서 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 제2금융권 · 대부업체에서의 대출, 카드사 대출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 신용평가지 제2금융권 · 대부업체에서의 대출, 카드사의 장, 단기카드대출을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개인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용한도 이내에서 신용으로 결제하고 후불로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입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대출 기능이 없으며 자신의 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소득공제 측면에서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을 준수하세요.

결제일에 해당되는 카드 이용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인하여 이용한도 감액, 수수료 인상, 카드 사용정지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및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가급적 미리 상환하세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은 본인의 카드 이용한도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및 카드론 이자율은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대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할 수 있을 경우,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시 즉시 대응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고, 이용한도는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기초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고 본인이 직접 보관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실이나 도난 사고를 당했을 때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고, 분실·도난 카드를 되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도난 접수 시점으로 60일 전 이후 발생한 제3자의 부정 사용금액은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금융꿀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③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



■ 가입부터 결제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 ① 가입 시 주요내용 설명을 듣고 약관과 핵심설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 정보유출, 카드 위·변조 등에 의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카드수령 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하고,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빌려주면 안됩니다. 참고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는 설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될수록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으며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통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④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할 경우 분실 및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위험이 크므로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⑥ 선지급포인트(세이프포인트)는 할인혜택이 아니라 현금으로 갚아야할 부채임을 인식하여 활용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⑦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은 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금리도 일반적인 장기대출보다 높으므로 필요 시 단기기간만 이용해야 합니다.
- ⑧ 현금서비스, 카드를론을 이용한 경우 다음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결제를 이용하여 즉시 대금을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활용방법

②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초정보를 모아 놓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을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금융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꿀팁 200선
 일상 금융생활에서 알아주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하여 알기 쉽게 정리한 "꿀팁" 정보입니다.

금융용어사전
 금융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금융용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익한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 fine.fss.or.kr)』에 오시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한번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FINE에서 제공되는 주요 제공정보

분 야	정보제공 명칭	주요 내용
“잊고 있었던 내돈을 찾아줍니다”	잠자는 내 돈 찾기	- 은행, 보험사 등에서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은행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색
“한눈에 예금 등의 금리,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어요”	금융상품 한눈에*	- 예금·적금 금리, 대출금리, 연금저축 수익률, 펀드 및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등을 쉽게 비교
“은행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대출까지 통합조회·관리할 수 있어요”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자동이체통합관리	- 모든 은행(저축은행, 우체국 등)계좌 일괄조회, 해지 및 잔고 이전 -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및 포인트 일괄조회 - 보험가입정보 및 대출정보 조회 - 은행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일괄조회, 해지 및 변경
“연금가입내역뿐만 아니라 얼마를 받을지도 볼 수 있어요”	통합연금포털	-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가입내역, 예상연금액 등)
“알아 두면 피가되고 살이되는 금융정보를 배울 수 있어요”	금융꿀팁	-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이자줄이는 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휴가철 유익한 금융정보, 카드 사용하는 법,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 등 일상 금융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 제공
“여러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재산과 빚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인 금융거래	-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채무(국세, 과태료 체납정보 등)등을 확인 가능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주소를 한번에 변경할 수 있어요”	금융주소 한번에	-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
“자동차보험 등 보험상품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보험다모아*	-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등의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서민금융정보를 한 번의 방문으로 얻을 수 있어요”	서민금융 1332	- 서민맞춤대출 안내,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개인신용정보 무료체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소득수준·신용등급에 맞는 지원제도 안내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이 밖에도 많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조회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 한국신용정보원, NICE평가정보 등을 통해 신용정보 조회 - 금융감독원 등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검색 가능

* 모든 금융상품이 실시간으로 비교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 우선 '1332'를 통해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시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1332에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세요.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FAX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민원접수,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세요.

금융분쟁조정은 일반 민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다툼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률상 제도입니다. 금융분쟁조정 제도 이용시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최종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금융꿀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도

㉠ 장학금 제도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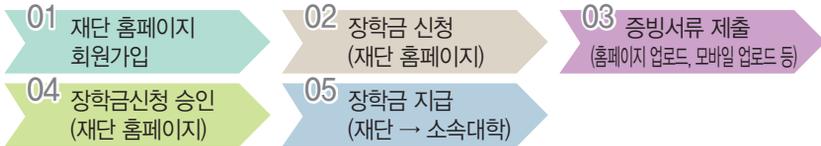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업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취업연계 장학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의 성적, 소득분위,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후 요건에 맞는 장학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 (I·II유형)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셋째 자녀 이상인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국가근로 장학금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근로시 지급하는 장학금
드림장학금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대통령 과학장학금	최우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희망사다리 (I·II유형)	중소 및 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 또는 선취업 후학습자를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

* 장학금별 세부기준, 절차 등 상세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학자금대출 들여다보기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제도로써,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학기별 최대 200만원 한도)

* 대출 유형에 따라 대출한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용자가 있으며, 대출자격, 상환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4. 금융감독원의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안내

금융감독원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 지원

- 내 용 : 대학에서 교양과목 등으로 '실용금융' 강좌 개설시 교수 및 교재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매년 2회(4월, 10월)에 각 대학에 안내
- 교육 내용 : 금융시장의 구조, 금융상품의 특성, 신용 및 부채관리, 재무설계, 연금관리, 금융소비자보호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 대학신입생 금융 특강

- 내 용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을 강의
- 신청 방법 : 매년 1회(2월)에 각 대학에 안내
- 교육 내용 : 금융사기 및 피해 예방, 대학생이 알아야 할 금융거래 기초 지식 등

㉢ FSS 금융아카데미

- 내 용 :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및 제도에 대한 전문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신청 방법 :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에서 FSS금융아카데미를 신청(일정 횟수 이상 이수시 수료증 발급)
- 교육 내용(일반과정) : 금융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등(월 1회, 2시간)
- 교육 내용(심화과정) : 금융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지식 등(연 1회, 8월중 2일간)

㉣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 내 용 : 어린이·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및 고령층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생에게는 재능기부의 장을 제공하고자 매년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선발하여 초·중·고교, 지역 아동센터, 시니어복지센터 등에 강사로 파견(활동기간 : 2년)
- 신청 방법 :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에 대한 연수(매년 8월) 실시 1개월 전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를 통해 안내 및 접수
- 선발 대상 :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 금나반(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 내 용 :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통해 유용한 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다양한 금융교육 및 취재 경험의 기회를 제공(활동기간 : 1년)
- 신청 방법 : 매년 1회(1월) 금융감독원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통해 안내 및 접수
- 선발 대상 : 대학생 15명 내외

5. e-금융교육센터 [금융교육 한눈에]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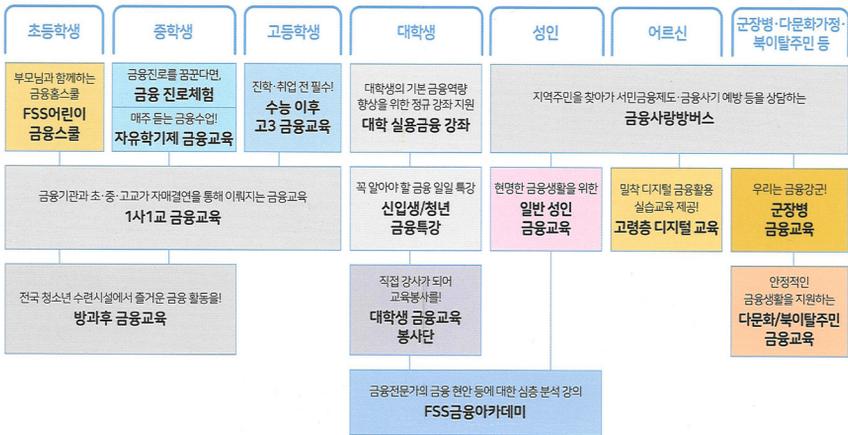
☑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을 지원하며,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국내 금융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을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02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 FSS FRIENDS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금융교육 강의를 제공하는,
방문 교육



연령별로 꼭 알아야 할 금융 지식을
언제 어디서든 공부하고 싶다면,
온라인 금융교육



금융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글짓기, UCC, 만화 등으로 표현해보세요!
금융 공모전

